

문덕진 교감 선생님댁을 다녀와서

〈편집위〉



“

인문계 학생으로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여성다운 여성으로서 인격과 교양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고 생각한다. 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일생의 한 단면일 뿐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동물로서 서로 양보하며 협조하고 희생하는 삶을 영위하는 일이니까.

”

“도대체 집이 어디야?”

“어휴, 다리 아파.”

“언니, 좀 천천히 가요.”

“빨리 가야지. 늦었잖아.”

“배고파 죽겠다.”

개 버릇은 남도 못 준다고 누가 그랬던가. 집을 안내해 주시는 선생님의 뒤를 쫓아 가면서도 우리들은 연신 입방아를 찧어댔다. 하지만 이렇게 즐거운 듯이 재잘거리고 있어도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교감 선생님 댁이라는 약간의 부담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얼마를 걸어가다 우린 잠시 이 피곤한 입들을 쉬게 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저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교감 선생님께서 우리를 보며 서계셨기 때문이었다. 교감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집 앞까지 마중을 나오신 것이었다. (아, 이 감격! 이 흥분!)

“안녕하세요.”

“어, 너희들 이제 오는구나. 난 또 너희들이 집을 못 찾을까봐 이렇게 나와 있었지. 자, 어서 들어가자.” 교감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우린 작은 계단으로 들어섰다. 뚱뚱한 사람은 절대 둘이 함께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계단이었다. 그리고 그 계단 끝에는 맛있는 음식냄새가 마구마구 풍겨

나오는 자그마한 문이 있었다. 그 문 안에는 마치 꿈으로만 보아 오던 행복의 나라가 펼쳐져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을 하며 우린 집 안으로 들어섰다. 우리가 들어서자마자 어떤 꼬마가 부끄러운 듯 쪼르르 이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린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었다.

집안으로 들어서며 우린 깨끗한 거실의 구석구석을 통해 사모님과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거실의 여러 곳으로 눈이 돌아갔지만, 하지만 역시 우리의 시선을 가장 많이 끈 것은 상위에 꾸집하게 차려진 저녁식사였다. 우리들의 혀 끝에서는 벌써 침이 돌고 있었고 뱃 속에서는 꼬르륵 소리마저 날 것 같았다. 이런 우리들의 응큼한 마음을 알아 차리셨는지 교감 선생님께서 아주 반가운 말씀을 하셨다.

“자, 배고프지. 우선 저녁부터 먹자.”

“와, 진수성찬이다. 정말 맛있겠는데요.”

상 위에 맛갈스럽게 차려진 음식을 보고는 살을 빼겠다던 지연이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야겠다며 장난스런 웃음을 지었다.

“잘 먹겠습니다.”

“소금과 조미료를 안해서 좀 입에 안

맛아도 많이들 먹어요.”

따뜻한 국을 내어 오시는 사모님의 손길과 입가에 잔잔하게 흐르는 부드러운 미소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좀 풀어주는 듯 보였다.

얹얹, 찹찹, 배가 무척이나 고팠던 우리는 밥 한 그릇을 똑딱 게는 감추듯 해치워 버렸다. 하지만 인숙이는 밥 한 그릇이 아쉬웠던지 계속 숟가락을 입에 물고 있다가 한 그릇을 더 먹기도…….

“잘 먹었습니다.”

“자, 이제 식사를 했으니가 이층으로 올라가서 얘기를 나눌까?”

“네.”

우리는 계단을 따라 이층으로 올라가 거실에 모여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선생님택의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교감 선생님택의 가족은 선생님과 사모님, 그리고 의젓한 큰 아들과 예쁜 딸, 장난기 있어보이는 막내아들, 모두 이렇게 다섯명이었다.

잠시 후 우리는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을 잊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머리를 굴리며 기자로서의 천성을 어김없이 발휘했다.

“선생님, 얼마 전 일본에 갔다 오셨는데 그 얘기 좀 해 주세요. 일본엔 왜

가셨어요?”

“세미나 참석을 위해 간 거지. 너희들도 알까 모르겠네 ‘에스페란토’라고 세계 공통어가 있는데 그 어학 공부를 위해 간 거야.”

“에스페란토요?”

“응, 그래. 배우기도 아주 쉽고 의사소통도 편해 요즘은 대학생들이 많이 배우고 있더구나.”

“아, 그러면 여가시간엔 뭘 하세요?”

“글쎄, 여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틈틈이 정구를 치고 있단다.” (나중에 안 이야기지만 선생님께서는 체육회 정구협회 부회장이셨다.)

“선생님 택의 가훈이 뭔지 알고 싶어요.”

“가훈? 저기 액자가 보이지?”

선생님께서 가리키는 손끝의 벽면에는 붓글씨로 ‘건강하게, 화목하게, 슬기롭게’라고 쓴 액자가 걸려 있었다.

이렇게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모님께서 어느 새 쟁반에 과일을 들고 올라 오셨다. 사모님께서서는 과일을 깎으시며 우리에게 명 요리강좌(?)를 시작하셨다.

“조미료와 소금을 넣으면 맛은 좋지만 몸에는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그런 것을 쓰지 않는단다. 주로 자연식을 위주로 하고 간식

도 직접 만들어 주지.”

가족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정성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으며 자란 구석에 앉은 작은 꼬마 녀석들이 꾀금은 부럽기까지 했던 것도 사실이다.

교사가 되신 것을 후회해 보신 적은 없으시냐는 우리의 질문에 선생님께서는 일부 학생들의 지나친 행동과 이기적인 생각, 또 개전의 뜻이 전혀 없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한 두번 후회도 해 보았지만 그래도 학생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 앞으로의 국가의 새싹을 기른다는 자부심에 학교에 계속 머무르고 계시다는 말씀에, ‘역시 교사는 천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고아나 결손가정 학생들과 양부모 관계를 맺어 졸업 후에도 계속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해 오는 것과, 재학 중 성실치 못하던 학생이 졸업 후에 찾아와서 재학 중의 잘못을 이야기 나누며 앞으로 부끄럼 없이 살겠다고 하였을 때는 정말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꼈다고 말씀하시며 넓은 웃음을 지으시기도 하셨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문득 마루에 걸려 있는 대학교 졸업 사진을 보고는 선생님의 학창시절 꿈이 무엇이었나 궁금해졌다.

“선생님, 만약 선생님이 되지 않으셨다면 지금쯤 뭘 하시고 계실까요?”

“글쎄다. 아무래도 전자공학과를 나왔으니까 어떤 전자회사, 아니면 그 계통의 직종을 자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 학교에서만 보던 교감 선생님의 딱딱한 모습을 점점 잊어 갔다.

“선생님, 만약에 호준이가(큰 아들) 여자친구를 데려오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우리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올까 서로의 얼굴을 바라 보았다.

“뭘 어떻게 해. 데리고 왔는데 내쫓을 수 있나?”

와! 선생님께서는 의외로 아주 화끈한 답변을 해주셨다.

“선생님, 다른 학교 학생과는 달리 우리학교 학생들에게만 있는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우선 학교에 대한 긍지가 남보다 강하고 어떤 일에 임하였을 때 보이지 않는 단결력이라든가 명랑하고 쾌활한 점은 참 좋은데, 예의가 좀 부족하고 인내력이나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약해서 이걸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막 이야기가 끝났을때 시계가 9시중
을 쳤다.

“어머, 벌써 9시야.”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문일 여
고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세요.”

“인문계 학생으로서 대학에 입학하
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여성다운 여성으로서 인격과 교양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일생의 한 단
면일 뿐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동물로서 서로 양보하며 협조하고 회
생하는 삶을 영위하여야 될것 같아.
너희들은 장차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키워야 하지. 자신들은 부모에게 잘
하지못하면서 자기 자식들에게는 잘
대해 주길 원하는 그런 잘못된 삶은
살지 않기를 바란다. 아무쪼록 원하

는 대학에 입학하고 훌륭한 여성으로서
이 국가를 이끌 귀한 아내로, 또는 어
머니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교감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에 한동안
우린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시간이 그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무거운 엉덩이를 일으
키며 선생님 택 가족들과 함께 사진
두 장을 찍은 뒤 아쉬운 마음으로 문
을 나섰다. 모두가 문 밖까지 나와 배
웅을 해 주셨고, 교감 선생님께서는 우
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길까지
직접 배웅해 주시겠다고 걸어 나오셨
다. (아, 다시 한번 감격/홍분!)

초가을의 밤공기는 싸늘했지만, 버
스 정류장까지 나오셨다가 돌아가시
는 교감 선생님의 뒷모습은 한없이 따
뜻하게만 느껴졌다. 文九

정리 / 윤 정 아